

[TV]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주말 안방은 '연개소문천하'

KBS '대조영'·SBS '연개소문' 동시간대 시청자 사로잡아

인공이지만 최근 두세달 간은 연개소문(김진태)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대조영'에서 연개소문은 백전노장 장년의 베테랑 장수...

주말 저녁 두 명의 연개소문이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월·화요일에는 설화 주인공 주몽이 인기 스타라던 주말 저녁에는 단연 고구려 영웅 연개소문이다.

9월16일 KBS 1TV '대조영'이 시작되면서 부터니 벌써 3개월 째, 그에 앞서 SBS TV에서는 '연개소문'이 전파를 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연개소문'에서의 청년 연개소문은 자신의 조국 고구려를 '오랑캐'라 부르는 아내를 비롯한 수나라 귀족들과 어울린다.

현재 청년 연개소문은 수나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러한 청년 연개소문의 모습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빨리 중년 연개소문으로 바



연개소문

졌으면 합니다'(네티즌 이미지)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개소문의 고뇌하고 방황하던 청년시절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동시간대 방송되는 두 사극이 다루는 시대와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 "다양성을 해치는 전파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C, 이번엔 연기자 변신

Mnet 판타지 드라마 주인공

김C가 CJ미디어의 음악·엔터테인먼트 채널 Mnet이 제작하는 3부작 판타지 드라마의 주연으로 안방을 찾는다. 김C는 30일부턴 3주간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될 드라마 '추락하는 제니'에서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기는 29살의 지천세 역을 맡아 19살의 동명이인으로 분하는 신인 탤런트 백현과 연기 호흡을 맞춘다.

자신을 천사라고 우기며 당돌하게 구는 제니(박진기 분)가 어느 날 사라지고 이름이 같은 두 남자가 제니를 찾아나서면서 드라마가 시작된다.

KBC 광주방송 '하의도, ...'

2일 오전 11시 앙코르 방송

하의도 농민들의 괴망연 투쟁을 통해 FTA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을 살펴본 광주방송 창사 11주년 기념 보도특집 '하의도, 350년의 투쟁'(연출 신진호)이 2일 오전 11시 특별 재방송된다. 지난 18일 전파를 탄 '하의도...'은 우리 땅을 지키는 농민들의 노력을 현장감있게 담아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Advertisement for KCTV 25th anniversary, featuring a horse and rider, with text about national security and product prices.

케이블·위성TV 30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SBS, E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